



안녕하세요? 홍경희 수녀입니다. 저는 1990년에 입회하여 2015년에 은경축을 하였습니다. 25년 동안 목포 연동과 광주 학운동, 전주 동산동, 부산 활천, 대전 정림동 성당에서 전교수녀를 하면서 신자들로부터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고 그들의 아픔을 어루만지고 기도하며 다양한 삶을 경험하면서 성장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수원 도착 무료 노인 요양원에서 치매 어르신들과 생활하면서 지금 이 순간의 나의 모습이 온전한 정신이 아닐 때의 모습과 같음을 경험하면서 지금 이 시간 이 장소, 이 상황, 이 사건과 만남 안에서 나의 삶의 태도와 생각들이 미래의 수도여정에도 영향이 미치게 됨을 느꼈으며 오늘의 소중함을 체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광주 조선대학교 병원 원목수녀를 하면서는 환자와 그 가족들, 병원에서 종사하신 선생님들과 중환자실에서 죽음을 맞이하고 계시는 분들을 위해 기도드릴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어린이들을 위한 사도직은 2002년부터 2008년까지 광주 씨튼 어린이집과 예비신학생 담당 소임을 5년 6개월을 했으며 2014년부터 다시 광주 씨튼 어린이집에서 소임을 하고 있습니다.



아침 등원 때 "안녕하십니까?" 인사를 하고 활짝 웃는 천사들의 미소와 점심 후 이를 닦다가 입 주변에 치약을 잔뜩 묻힌 채 저에게 달려와 "수녀님! 사랑해요." 라며 저의 굵은 다리를 꼭 껴안은 후 다시 화장실로 가서 이를 닦는 아이의 사랑 표현에 감동합니다. 인생에서 가장 귀하고 소중한 어린시절 그 삶의 역사에 초대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 축복의 전달자로 살고자 노력 합니다.



우리 아이들의 어린시절 아름답고 행복한 주님 사랑의 추억들을 선생님들과 함께 더 많이 만들어 가고자 마음을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소임과 경험을 허락해 주시고 그 안에서 지혜를 선물로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작년 은사 체험 때 미국관구 수녀님들과 함께 했던 체험은 참으로 잊을 수 없는 귀한 사랑의 시간이었습니다. 함께 했던 수녀님들과 자주 연락은 못 드리지만 매일 기도 안에 함께 할 수 있어서 기쁩니다. 이 세상을 마칠 때 주님 축복의 전달자로서의 역할을 다했다고 활짝 웃는 모습으로 귀천하기를 희망합니다. 아멘...^_^





Greetings from Korea! My name is Hong Kyeong Hee. I entered the community in 1990, and celebrated my silver Jubilee in 2015. I worked at several parishes, such as Yeon-dong parish(Mokpo), Hakun-dong parish (Gwangju), Dongsan-dong(Jeonju), Hwalcheon-dong(Busan), and Jeongrim-dong(Daejeon). Through the years I experienced giving and receiving love from the parishioners, praying for healing the hurts of their lives. It was such a moment of my growth and knowing the various levels of life as human beings.

At the Docheuk free nursing home in Su-won (we withdrew from ministry there a long time ago) I spent some time working for the elderly with dementia. I could picture myself in the future through them, and came to know that our future depends on what we do and think today. In other words, past is a link with my present and where this present will lead me in the future of my religious life. I could appreciate the importance of the here and now.

While I was working as a pastoral minister at Chosun University Hospital, I would pray with the patients, their families, all the staff of the hospital and especially, pray for the dying in ICU. I am grateful to God for allowing me to have that opportunity. I also worked for children at daycare center from 2002 to 2008 along with being in charge of the pre- seminarians of Gwangju Diocese for five and half years. Since 2014 I have been working at Seton Day Care Center in Gwangju.



Every morning begins with the beautiful smiles of our children. I am touched by their big hugs and with their words of love with a mouth full of toothpaste after lunch. I am so grateful to God who allowed me to be invited to these precious and important moments of their lives. I make efforts to be a person who delivers the blessing of God to everybody I meet.

With all the teachers we are making beautiful memories that the children will have forever. I am grateful for all the experiences and wisdom that God has given to me in my life. Most of all, I had unforgettable moment with American Sisters through IECM program last year. Though I don't get in touch with them often, they are always in my prayer, so I am happy. I wish I could arrive in Heaven smiling and saying that I did all the things that I should do as the messenger of God's blessing to the world. Amen!

